

꿈바당편지

인정받고 싶었고, 빛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 마음 아픈 날이면 피려는 엄마나비를 생각했다.
세상이 켜놓은 불빛 때문에 별들은 하나둘 밤하늘을 떠나버렸다고,
불을 켜면 별은 멀어진다고 엄마나비는 말했다.

- 이철환 시인의 『위로』 중에서 -

유성우가 쏟아질 거라는 예보가 있었던 날, 하늘에 하나 둘 별이 보이기 시작하자 '새별오름' 광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따라 구름이 밤하늘을 뒤덮고 있어서 별들은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멀리 갈치배의 환한 불빛도 달을 보는 데는 방해가 되었습니다. 기다림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어요. 아... 이것은 잠시라도 눈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유성우가 획 지나가 버릴 것 같아 하염없이 밤하늘만 쳐다보았지요. 유성우를 보았을 때 빌게 될 소원까지도 생각을 해 놓았습니다.

누구든 여름이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늦은 밤까지 시끄럽게 울어대는 매미소리 때문에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열대야의 열기를 식히려 밖으로 나갔다가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여름이면 유독 늦어지는 귀가 시간 때문에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여하튼 별은 여름밤에 한층 더 우리와 가까워집니다.

어렸을 때, 엄마에게 혼난 날이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집 근처 부둣가에서 어두워지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 냈지요. 내가 만든 이야기에는 어른이 없는 아이들만 있는 세계였어요. 가끔 어른이 등장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모두 악역뿐이었어요. 이 세상에 어른이 없고 아이들만 있다면 훨씬 더 멋있고 행복한 것만 같았던 날들이 여름엔 더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꾸벅꾸벅 졸음 오는 시간이 되면 모두가 잠자는 가족들 곁으로 슬그머니 다가가 아주 잠깐이지만 엄마 없는 세상을 그려보았다는 미안함으로 엄마를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잠이 든 다음날 아침이면 세상은 한뼘씩 작아지고 나는 훨씬 더 많이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그날 내가 만들었던 이야기는 희미해지고 내가 꾸었던 꿈도 잊어버렸습니다. 또 불빛이 너무 많아져서 밤하늘의 별빛이 예전처럼 반짝거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름밤이면 늘 함께했던 별들과의 시간이지요. 밝고 많은 불빛으로 밤이 대낮처럼 환해져 별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오늘도 그 시간이 있었기에 찬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을 켜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문득 너무 많은 불빛을 켜고 있어서 밤하늘 별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늘을 떠나고 있지 않을까란 이철환 시인의 글을 되새겨봅니다.

그날, 유성우를 보았는지 궁금하시죠?

예. 보았습니다. 두 개의 유성우가 쪽 밤하늘을 가르면서 앞으로 앞으로 길을 만들며 나아갔습니다. 많이 반짝였고 많이 밝았고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조용한 밤하늘 아래에서 탄성까지 지르며 유성우가 지나간 밤하늘을 오래오래 보았습니다.

저녁 8시, 도서관이 문을 닫는 시간이 되면 꿈바당 하늘에도 하나 둘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별을 보며 도서관을 나서는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별이 됩니다. 부디 이 별들이 밤하늘에서 더 많이 반짝거릴 수 있도록 불을 켜지 말아주세요.

오래오래 이 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밤하늘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아주 가끔은 아이들 별나라에 우리 어른들이 입장하지 못하더라도 당황하거나 서운해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꿈별이 반짝이는 꿈바당에서

꿈바당책장



서평 창작동화 《바다별, 이어도》

서명: 바다별, 이어도 / 글: 김병심 / 그림: 안민승 / 출판사: 파우스트 / 청구기호: 제주 813.7-김44번

밤바다는 고요했고, 자잘한 별들은 빛났다. 황금빛 긴 머리카락을 가진 여인과 함께 쪽배를 타고 형제섬 가까이 노를 저어갔다. 별빛을 한몸에 받고 있던 바다는 수면 아래로 떴지어가는 고래들에게 빛을 나눠주고 있었다. 바다는 어린 아이처럼 그대로인데 나는 자라서 바다 위에 떠 있었다. 그때 황금빛 긴 머리카락을 가진 여인이 무지개 빛이 테두리에서 빛나는 야광 뿔채를 내게 건넸다. 나는 순식간에 고래 한 마리를 건져 올렸다. 고래의 등에는 하늘에서 금방 떨어진 노란별이 박혀있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나는 사내아이를 낳았다. 아이의 태몽이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무릎에 앉아 나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바다별, 이어도》가 단숨에 쓰여 졌다. 자연스럽게 하룻밤 사이에 이야기가 생겨났다. 아이의 이야기이자, 나의 이야기인 《바다별, 이어도》.

글쓰기는 하룻밤의 일이지만, 이야기가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인연과 시공간이 켜켜이 쌓여서 작가의 영혼을 움직인다는 것을 밝혀두고 싶다. 이야기가 작가의 영혼을 깨우기도 하고, 작가가 먼지에 쌓인 이야기를 보물창고에서 발견한다고도 할 수 있겠다.

나의 고향은 제주도의 남쪽, 바닷가 마을 사계이다. 은빛 모래가 보이는 맑은 시냇가라는 풀이름 가진 사계 마을은 '검은잔'이라는 옛 지명도 가지고 있다. 흙과 바위가 겹쳐서 검은 길이라는 옛 지명 또한 마을의 모양이 비옥하고 인체 중에서는 검은 진주를 품은 눈빛 같아서 매력적이다. 더욱 매혹적인 것은 사계 마을 앞에 펼쳐진 바다 속에 이어도라는 상상의 섬이 숨겨져 있다는 점이다. 제주 사람들이 죽어서 갈 수 있다는 이어도는 낙원이라 불리기도 하고 무릉도원처럼 선계일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그곳에 가면 현생으로 돌아오는 이가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전해진다. 선박이 침몰되거나 해녀들이 물질을 하다 죽으면 이어도로 갔으니 호상이라고도 했다.

사계 마을 앞, 바다에는 형제섬과 가파도, 마라도가 있다. 세 개의 섬과 함께 수면 밑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품고 있는 이어도가 있다. 나는 어릴 적 바다를 바라보면서 상상의 날개가 자라서 거드랑이가 가려웠다. 사계 마을에는 왕후지지의 전설을 품은 '산방산'도 있다. 나는 온통 신화와 전설 속에 쌓인 마을에서 살았지만, 어른이 될 때까지 마을의 신비를 모른 채 성장했다. 내가 태어난 곳이 얼마나 거대한 이야기 보물창고를 지닌 보물섬인지 모른 채 이국의 이야기들을 읽으며 성장했다. 세계문학전집을 읽고, 그리스 로마신화를 읽으면서 학교를 다녔다.

이국을 동경하며 이국의 문명을 배운 것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나의 고향의 신화와 전설, 피안의 세계를 낙원으로 삼기며 자연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글을 쓸 일만 남았다. 《바다별, 이어도》에서 온 파랑이라는 돌고래를 첫 창작 동화집에서 소개한 것이 시작인 셈이다.

《바다별 이어도》에서는 제주 바닷가 마을에 사는 한 소녀와 돌고래 인형과의 보이지 않는 우정과 교감을 통해, 이어도의 존재를 살며시 알려준다. 소녀가 아끼는 돌고래 인형이 사실은 전설의 섬, 이어도에서 왔다는 것과 소녀와 돌고래 인형의 인연이 먼 옛날 이어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소중함을 그렸다. 존재와 존재와의 관계가 지금 이 순간의 관계가 전부가 아닌 먼 전설에서부터 시작된 소중한 운명이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 알게 된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면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연 혹은 운명이라 부른다. 바다별 이어도에서부터 시작된 소녀와 돌고래 인형과의 별처럼 빛나는 사랑과 우정을 공감할 수 있다면 바닷 속에 별처럼 빛나는 섬 이어도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인, 동화작가 김병심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동화집으로 「바다별, 이어도」, 「배도롱 공주」를 썼으며, 산문집으로 「돌아와요, 당신이니까」가 있다.

시집으로 「사랑은 피고 지는 일이라 생각했다」외 7권을 펴냈으며, 「올레길 아이들」, 「우리는 나란히 아름답습니다」를 엮었다.



어제 읽은 책①

아나톨의 작은 냄비

이자벨 카리에 지음 / 권지현 옮김 / 씨드북 / 청구기호 [그림책방 863 까29o]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냄비를 달고 다니는 아나톨. 상냥하고 잘하는 게 아주 많은 아이지만 사람들은 자꾸 냄비만 쳐다봅니다. 냄비가 이상하다면서요.

냄비 때문에 아나톨은 힘들어요. 작은 냄비가 걸림돌이 되고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화도 내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요. 결국 평범한 생활이 힘들어지자 아나톨은 꼭꼭 숨어 버리려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아나톨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듯 했지만 작은 초록색 냄비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 말을 걸어 옵니다. 그 사람은 아나톨이 냄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무엇을 잘하는지도 발견해 줍니다.

달그락거리는 냄비는 콤플렉스, 남과는 다른 생각,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 등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류는 다양하지만 누구나 냄비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책 <아나톨의 작은 냄비>는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잔잔한 시선으로 이야기합니다. 남과 다른 나를 인정하고 있는지, 나와 다른 타인을 차별하지 않는지를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른 삶과 꿈을 가지고 있고 각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면 아나톨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예전과 똑같은 아나톨이지만 숨지 않고 당당한 아나톨처럼요.

어제 읽은 책②

아몬드

손원평 지음 / 창비 / 청구기호 [청소년 813.7 손66o]



나에게 아몬드가 있다. 당신에게도 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거나 가장 저주하는 누군가도 그것을 가졌다. 아무도 그것을 느낄 수는 없다. 그저 그것이 있음을 알고 있을 뿐이다.(프롤로그 중에서)

‘아몬드’는 제10회 창비청소년문학상 수상작이다. 출판평론가 한기호는 ‘한국형 영어덜트 소설의 등장. 고통과 공감의 능력을 깨우치게 할 강력한 소설’이라고 평했다.

이 이야기는 괴물인 내가 또 다른 괴물을 만나면서 성장하는 이야기이다. 주인공 ‘윤재’는 속칭 아몬드라고 불리는 편도체가 고장 나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독특한 캐릭터이다. 윤재는 소설 속 다양한 인물들과 관계를 맺고 슬픔에 공감하고, 감정을 느끼는 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 영화처럼 펼쳐지는 극적인 사건들이 윤재의 시선을 통해서 절제된 감정으로 묘사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소설을 단숨에 읽어 내려가게 하는 몰입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감정불능의 시대에 작가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도, 괴물로 만드는 것도 ‘사랑’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작가의 말에서 표현했듯이 좀 식상한 결론일지도 모르겠다. 이를 사회적으로 표현하자면 타인에 대한 관심, 배려, 믿음 정도가 아닐까 싶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의 배설물 같은 감정을 아무데나 아무에게나 버리지 않는 것이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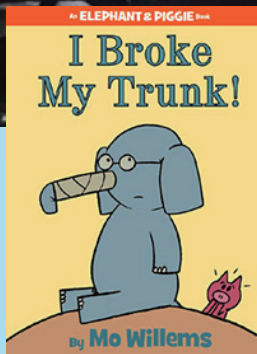
어딘가를 걸을 때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았던 걸 기억한다. 엄마는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가끔은 아파서 내가 슬며시 힘을 빼면 엄마는 눈을 흘기며 얼른 꼭 잡으라고 했다. 우린 가족이니까 손을 잡고 걸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반대쪽 손은 할아버지에게 쥐여 있었다. 나는 누구에게서도 버려진 적이 없다. 내 머리는 형편없었지만 내 영혼마저 타락하지 않은 건 양쪽에서 내 손을 맞잡은 두 손의 온기 덕이었다.(본문 중에서)

- 열람실담당 조경림 사서 -



8월,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하늘의 뭉게구름, 소나기의 시원함, 자연을 물들인 진한 생명의 녹색은 한여름 무더위 속 지친 일상을 잠시 식혀주는 즐거움이지요.
방학을 맞은 우리 아이들의 땀방울을 잠시 식혀 줄 신나는 이야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다’를 주제로 ‘문학’, ‘미술’, ‘마술’, ‘마임’ 등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꿈바당 문학교실 I broke my trunk!

모 윌렘스의 작품들을 함께 읽으며 영어 그림책 읽기의 참 재미를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다른 언어 속에 녹아있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동안 아이들의 상상력은 더욱 커지고 깊어질 것 같습니다.



꿈바당 공룡교실 모여라, 7살 공룡이

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책 놀이, 신체놀이, 창의미술 놀이 등 다양한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자신만의 공룡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만들어 보는 시간!
깜찍한 공룡, 무시무시한 공룡, 유쾌한 공룡, 7살 공룡이 들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기대됩니다.



꿈바당 마술교실

어서와, 마술은 처음이지

자신의 존재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 아이들의 자존감과 꿈은 커집니다.

이 멋진 순간이 어떤 친구에게는 꿈으로, 어떤 친구에게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억 되기를 바랍니다.



꿈바당 마임교실

몸짓, 마음 짓

호흡하는 방법, 몸 움직임의 변화를 느끼는 방법, 그 느낌을 몸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익히며 자신의 감각에 집중해 봅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이 얼마나 기발한 몸짓을 만들어낼지 무척 설렙니다. ^^

프로그램 명	일기	장소 및 횟수	대상 및 인원
꿈바당 문학교실 I broke my trunk?	8월 15일(수), 16(목) 10:00~12:00	프로그램실 (2회)	초등 2~3학년
꿈바당 공룡교실 모여라, 7살 공룡이	8월 15일(수), 16(목) 14:00~16:00	프로그램실 (2회)	7세
꿈바당 마술교실 어서와, 마술은 처음이지	8월 22일(수), 23(목) 10:00~12:00	프로그램실 (2회)	초등 3~5학년
꿈바당 마임교실 몸짓, 마음 짓	8월 22일(수), 23(목) 14:00~16:00	프로그램실 (2회)	초등 1~3학년





도서관과 사람



8월에는 오빠와 함께 도서관에 책을 읽으러 온 조예준(10살) 어린이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작가'님'이라고 존칭을 붙여 말하는 멋진 예준이는 안비루 아스코와 앤서니 브라운 작가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이하 꿈): 안녕하세요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에 자주 오나요?

예준: 일주일에 다섯 번이나 네 번 정도 와요. 책도 많고, 프로그램도 재밌어서 자주 와요.

꿈: 주변에 책을 잘 안 읽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왜 안 읽을까요?

예준: 지루하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꿈: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이 책을 읽게 할 수 있을까요?

예준: 책이 재미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관심 있는 내용의 책을 소개해주면 잘 읽을 것 같아요.

꿈: 지금 여름이잖아요. 바다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예준: 바다하면 제주도에 사니까 해녀가 제일 떠올라요. 해녀는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해요. 예전부터 섬이니까 먹을 것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 대신 바다에 가서 먹을 것들을 갖고 온 점이 대단한 것 같아요.

꿈: 예준이는 언제 기분이 좋고, 언제 화가나요?

예준: 기쁠 때는 생일날 칭찬이나 선물을 받았을 때. 화가 날 때는 오빠나 친구들이랑 싸울 때구요, 누가 제 욕을 해도 화가나요.

꿈: 화가나면 어떻게 해요?

예준: 몇 시간 동안 말을 안 하다가, 누가 먼저 말을 걸면 그때부터 말을 시작하고 마음이 풀려요.

꿈: 승현이가 7월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동물이나 식물 중에서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예준: 북극곰을 만나고 싶어요. 1살 때부터 갖고 있던 인형이 있는데요, 그 인형이 가장 포근한데 그 친구가 곰이거든요.

꿈: 북극곰을 만나면 뭘 할 거예요?

예준: 북극곰을 만나면 인사를 하고 재밌게 놀 거예요. 북극에 있으니까 눈싸움도 하구요.



꿈: 마지막으로 꿈바당도서관에 궁금한 것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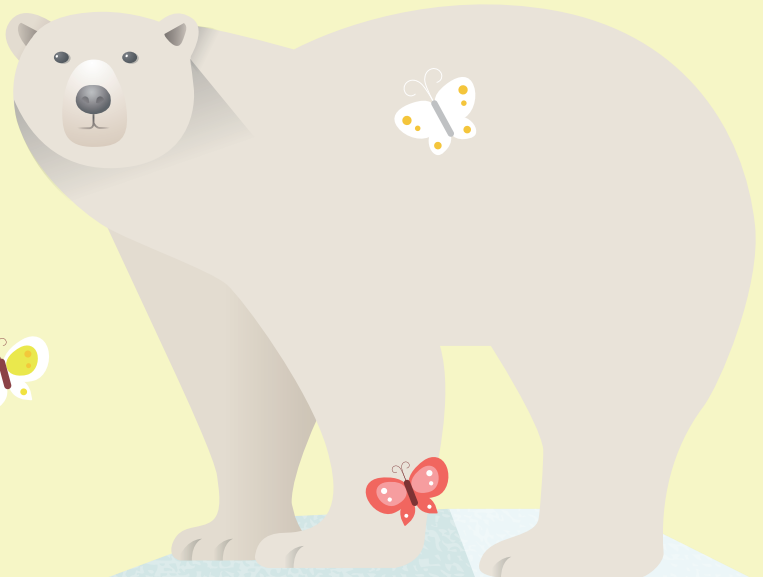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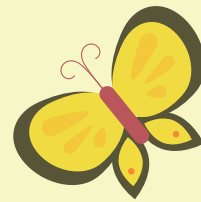
예준: 궁금했었던 게 있었는데, 데스크에는 어느 선생님이 계시는지 궁금해요~

꿈: 데스크에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선생님 7명이 돌아가면서 안내하고 있어요.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예준: 도서관이 예전에 대통령별장이었다는데 왜 새로 짓지 않았어요?

꿈: 건물이랑 정원이 너무 멋있어서 새로 짓진 않고 제주의 어린이들한테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공간이 가진 의미를 살리고 싶었거든요. 예준아, 고마워요! 오늘 인터뷰 함께 해줘서.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인 조예준 어린이의 릴레이 질문은 “나중에 장래희망은 무엇인가요?”입니다. 8월 인터뷰에는 도서관 8월 주제인 ‘바다’와 뱀상 빌미노 작가가 쓴 [왜?]로 시작하는 어린이인문학]에서 고른 질문이 포함되었습니다.



공감,공간



제주의 도서관 두맹이작은도서관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14길 16-1
전화 : 064-721-0599
휴관일 : 일요일, 공휴일

2011년 3월 개관한 두맹이작은도서관은 두맹이골목 안에 있습니다. 두맹이 골목은 '기억의 정원-두맹이골목'이라는 공공 미술 프로젝트에 따라 추진된 골목길 재생 사업으로 탄생했습니다. 주민 자치 위원회와 (사)탐라미술인협회 공공미술연구회, 인화·일도·동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도서관 입구에서 공간의 역사에 대해 전시해놓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두맹이 골목의 벽화를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소담한 두맹이작은도서관에서는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과 협력하여, 8월 매주 화요일에 "맛으로 읽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골목의 끝, 두맹이작은도서관에서 자신만의 '기억의 정원'을 만들어보세요.



※사진출처: 만춘서점 인스타그램

제주의 책방 만춘서점

주소: 제주시 조천읍 함덕로 9
전화: 064-784-6137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manchun.b.s/

만춘서점은 물빛으로 이름난 제주 함덕해수욕장에 있습니다. 이름은 일본 오즈 야스지로 감독의 동명 영화에서 따왔습니다. 네모반듯한 건물이 아닌, 삼각형의 건물을 보니 존 클라센의 그림책 [세모]가 떠오릅니다. 주인장이 고른 책 외에도 음반과 굿즈도 함께 판매합니다. 책속의 글귀를 메모지에 써두어 책장에 붙여 놓아 선택에 도움이 되게 배려하였습니다. 이곳에선 책을 사고 싶은 마음은 공간의 크기와 상관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책을 읽지 않을 것 같은 동네 고양이들과 개들도 천연덕스럽게 손님마냥 들어와 기웃거리는 만춘서점입니다.



시시콜콜 뉴스

국립세종도서관 및 부산시 신규 개관 도서관 탐방



운영지원담당 김진수, 프로그램담당 김주미, 김효현 팀원은 지난 7월 18일, 2박 3일 일정으로 국립세종도서관 포함 충청 지역 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2013년 건립된 국립세종도서관은 대표 도서관다운 아름다운 건축물과 장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백색소음을 이용한 열람실부터, 노트북주차 이용할 수 없는 조용한 공간, 어린이 열람실, 모듬 공간 등 이용목적에 따라 어떻게 공간을 배치하는가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습니다.

또, 열람실담당 변아영 사서와 운영지원담당 최연실 팀원은 부산시의 신규 도서관과 문화공간을 다녀왔습니다. 부산현대미술관 내 어린이예술폭토서관의 새로운 분류체계를 참고하였으며, 공장건물을 리모델링한 F1963 복합문화공간을 살펴보고, 책 전시서가에 대해 고민하고 팀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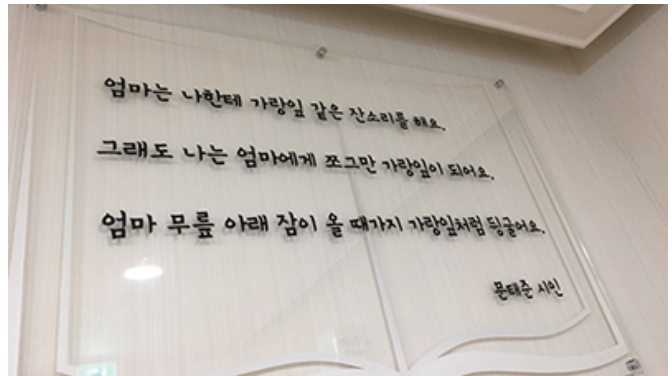


소나무 아래 산책로를 걸어요

도서관 산책로가 정비되었습니다. 돌 징검다리 대신 나무 데크를 설치하여 유모차와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벤치도 알록달록하게 변신하였습니다. 늦여름, 시원한 소나무 그늘 아래를 걸어보세요.

책속 한 문장, 레터링

도서관 하얀 벽면 몇 군데를 책 속 문장으로 장식하였습니다. 그 수많은 책 속의 좋은 글귀들 중에서 고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직원들의 열띤 토론을 거쳐 안데르센, 피르코 바이니오, 문태준 시인의 작품에서 발췌한 문장을 벽면에 레터링 하였습니다. 마음이 한번 쉬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배려해요

여름방학이 한창입니다. 오전부터 더위를 피해 도서관에 오는 가족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돌아서면 쌓이는 책 정리에 지쳐갈 때 즈음, 한 어린이가 만화코너를 번호순대로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재밌어서 한다면, 한참을 앉아서 계속 예쁘게 정리하였는데요, 또래 친구가 정리하고 있으니, 다른 친구들도 덩달아 조심히 책을 꽃았습니다. 배려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도서관의 하루가 또 흘러갑니다.

도서관 이용 tip!

- ① 책은 한권씩 꺼내요 ② 꺼낸 위치를 알 때는 제자리에
- ③ 꺼낸 위치를 모를 때는 반납대에 ^^

제주국제관악제

JDC와 함께하는 박거리 음악회의 일환으로 8월 5일 일요일 오후 북카페에서 관악공연이 열렸습니다. 멜로우톤, 수 플루트 주니어 앙상블의 연주와 함께하였습니다. 전문 공연장이 아니라 음향과 공간 배치에서 아쉬움은 남았으나, 도서관 정원 야외무대가 완공되면 더 멋진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음악이 있는 정원을 꿈꾸는 꿈바당도서관에서 8월의 여러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